

바쁜 일상 속 안정감을 주는 음악, 클래식 연주회를 가다!

문지예 MBC 미디어IT솔루션팀 사원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더 나아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가장 보편적으로 듣는 질문은 바로 ‘너는 취미가 뭐니?’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이 질문에 ‘음악 듣기’라고 답을 합니다. 물론 저 또한 누군가 취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음악 듣기’라고 답을 하곤 합니다. 제가 즐겨듣는 음악은 보편적으로 접하기는 조금 힘들지만 한번 듣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클래식 음악입니다. 이번 방송과기술 4월 호에 짧게나마 클래식에 대해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습니다.



• 대중음악이 아닌 클래식? •

• 클래식을 즐겨 듣게 된 계기

음악을 전공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악기 하나 하나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피아노, 첼로를 배우며 직접 연주도 하고 연주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에 취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 클래식의 차별화된 매력

흔히 클래식이라고 하면 ‘단조롭다’, ‘지루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가요는 짧은 시간에 다양한 박자와 직관적인 가사를 통해 청취자들에게 빠르게 노래의 주제를 전달하는 반면 클래식은 대부분 음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클래식만의 장점은 다양한 악기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곡이라도 악기의 수에 따라 곡의 전반적인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길다고 느껴지는 곡 안에 음악의 기승전결이 모두 느껴지는 것 또한 클래식만의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가장 좋아하는 악기 소리

저는 개인적으로 현악기 소리를 좋아합니다. 그중에서도 저음을 담당하고 있는 첼로 소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주회 중에서도 첼로 협주곡이 있는 연주회면 꼭 직접 가서 음악을 들곤 합니다. 첼로는 화려한 소리보다는 웅장한 음역대를 활용하여 첼로만의 색깔을 강조합니다. 또한 실제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음파와 높낮이를 가지고 있어 듣고 있으면 편안한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음이 낮다는 느낌만 드는 것이 아니라, ‘첼로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저음에 대한 감동이 몰려오는 것이 첼로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첼로만의 매력이 궁금하신분 들께 오펜바흐의 <자클린의 눈물>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 요즘 가장 많이 듣는 클래식 음악

저는 한 음악에 빠지면 그 음악이 질릴 때까지 듣는 편인데, 요즘에는 관현악 모음곡인 <홀스트의 행성>을 무한 반복으로 듣고 있습니다. 홀스트의 행성은 로마신화의 신을 각각 주제로 한 일곱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1악장인 <화성, 전쟁을 가져오는 자>와 4악장인 <목성, 즐거움을 가져오는 자>는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이 아는 곡일 것 같습니다. 실제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은 행성을 배경으로 대중적인 작품이 될 만큼 인기를 얻었고, 실제 스타워즈 OST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편성을 자랑하며 많은 악기가 필요한 곡이라 생각보다 전곡을 연주회에서 듣기 쉽지 않은데 최근 전곡을 연주회에서 듣고 매력에 빠져 계속해서 듣는 중입니다.



• 다양한 클래식 기악의 연주형태 •

• 실내악과 합주

2개 이상의 악기를 한 사람씩 연주하는 것을 실내악이라고 합니다. 실내악은 보통 2인 이상 10인 이내의 소규모 연주자가 지휘자 없는 상태로 연주합니다. 2중주라 하면 ‘바이올린 + 첼로’, ‘플루트 + 피아노’ 등과 같은 구성을 두고 있습니다. 비슷한 형식으로 3중주, 4중주 5중주 등이 있습니다. 합주는 파트를 여러 개의 악기로 연주하는 것입니다. 현악합주는 현악악기로만 합주를 하고 관악 합주라 하면 목관, 금관, 타악기로 합주를 하는 것입니다. 합주 중에 관현악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으로 구성된 가장 큰 형태의 연주형태이며, 흔히 아는 오케스트라로 불립니다.

• 교향곡과 협주곡

음악회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는 ‘교향곡’과 ‘협주곡’입니다. 교향곡은 여러 악장으로 이루어진 관현악단(오케스트라)이 연주하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보통 4악장의 형식이기에 구성이 다채롭고 웅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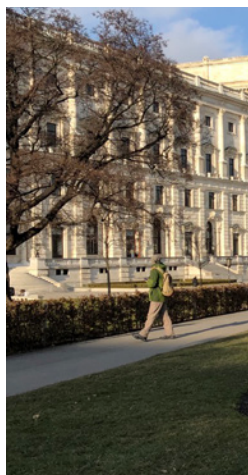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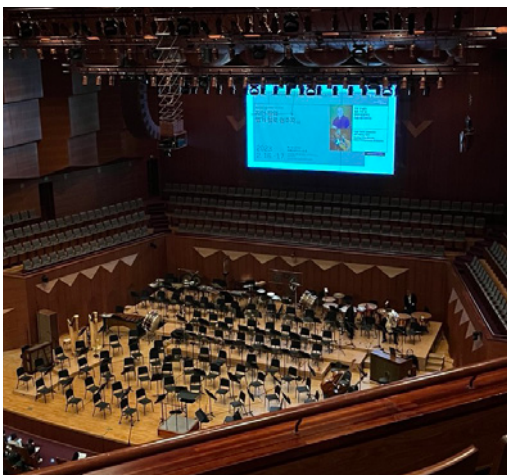
협주곡도 교향곡처럼 관현악단(오케스트라)이 등장해 연주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독주자가 올라와 협주를 하는 형태를 협주곡이라고 합니다. 피아노 독주자가 올라오면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독주자가 올라오면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표현합니다.

• 오케스트라의 구성

오케스트라는 관악기, 건반악기, 현악기, 타악기로 구성됩니다. 지휘자 왼쪽으로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있고 그 뒤에 콘트라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링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현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체임버 오케스트라라 하면 현악기 구성에 목관악기가 추가된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악기가 있는 만큼 현악기와 관악기, 그리고 타악기 등 다양한 악기와 조화로운 음악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Classical music





• 클래식 음악과 가까워지는 법? •

• 가장 좋아하는 음악가

작은별 변주곡,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작곡가로 유명한 모차르트를 가장 좋아합니다. '신이 내린 최대의 축복'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천재인 고전주의 대표 작곡가 모차르트 음악은 구조가 조화롭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간결하면서도 드라마틱한 단조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츠부르크에 방문하여 모차르트의 생가에도 방문해보고 길에서 작게 즉흥 연주를 하는 걸 들었던 행복한 기억도 있네요.

• 대표적인 국내 오케스트라 공연

국내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KBS 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모두 정기연주회를 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쉽게 오케스트라 실연을 접할 수 있고, 좌석 간 차이는 있지만, 1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오케스트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매번 정기 공연마다 곡에 대한 소개와 스토리들을 유튜브나 책을 통해 공개하고 있어 곡에 대한 이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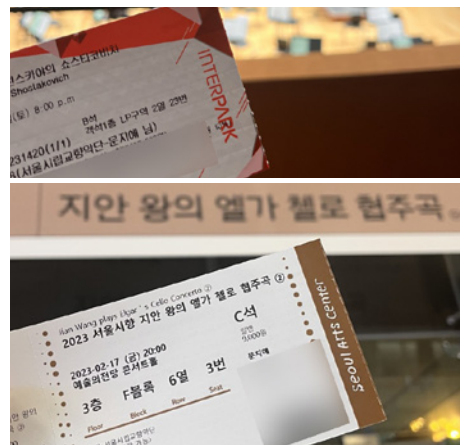
• 얼마나 자주 접하는가?

학창시절엔 학교에서 여는 작은 음악회나 가까운 문화회관 또는 아트홀에 가서 듣고 싶은 연주들을 정말 자유롭게 들었습니다. 또한 국내 대표 오케스트라 정기공연들도 자유롭게 많이 다녔습니다. 많은 오케스트라 정기연주들은 예술의 전당 음악당, 그리고 롯데

콘서트홀에서 저녁 시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거리가 멀고 시간대가 애매해 퇴근하고 자주 가기는 힘들지만, 최소 한 달에 한번씩은 음악회에 가서 직접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취미생활을 즐기는 편입니다.

• 클래식은 대중적이지 않다?

과거와는 다르게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클래식이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최근 대중음악에 클래식이 샘플링되기도 하며 Kpop 음악을 클래식 버전으로 공개하는 경우도 있어 많은 사람에게 친숙한 이미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클래식이 어렵다고 느끼기보다 다양하고 새롭다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클래식은 대중음악과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연주회에서 듣는 다양한 악기의 조화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알면 알 수록 새롭고, 재미있는 클래식은 계속해서 저만의 특별한 취미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때 한 번쯤 클래식 연주를 들으며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

Music

